

본 서신은 2024. 12. 31. 기준 주식회사 영풍(이하 “영풍”) 주주명부상 영풍 발행 보통주식 20주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께 발송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소기재 오류, 보유주식의 처분 등을 이유로 오발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본 서신의 수신자가 현재 영풍 발행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위임 참여 이벤트]

소액주주분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하여 2025. 3. 27.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헤이홀더 전자위임 기능을 사용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신 주주님들께 소정의 리워드를 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① 대상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로서 **20주 이상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개인 주주**

※ 단, 전자위임을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의결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② 전자위임 기간 : 2025. 3. 14. ~ 3. 26.

③ 전자위임 참여방법 : 5페이지 참고

④ 리워드 : **1만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⑤ 지급 방식 : 2025. 4. 10.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지급

본 행사는 주주님들의 소중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권 행사의 내용과 무관하게 리워드는 제공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풍 주주님

저는 본 서신 작성일 현재 영풍 발행주식 220주를 보유하고 있는 허권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면, 저는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기현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위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서 변호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를 운영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코스피 상장사인 아세아제지의 창사 이래 최초의 대규모 주주환원책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인포바인에 대한 주주운동을 직접 주도하여 200억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을 이끌어 내고, 주식가치를 약 200% 가까이 제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회장 직무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이렇게 불쑥 우편물로 인사를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작스레 등기우편을 받으시게 되어 많이 놀라신 분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영풍 주식가치를 함께 지키자는 마음에서 우편물을 발송드린 만큼,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저평가 주식, 영풍

2025. 3. 18. 현재 영풍의 주가는 약 490,000원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9,000억원이고, 자사주를 제외한 유통주식 기준으로 하면 약 8,400억원에 불과합니다. 영풍이 현재 약 88만원에 육박하는 고려아연 주식을 5,262,450주(시가 4조 6,300억원 상당)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로 엄청난 저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영풍이 소유하고 있는 영풍건물, 영풍문고건물 등 투자부동산들의 가치는 고려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 부동산의 가치만으로도 영풍의 시가총액은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고려아연의 주주로서 목소리를 높이는 영풍이 정작 자사 주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외면하던 상황이 부담스러웠는지, 영풍도 최근 머스트자산운용의 제안 중 일부를 받아들여 10:1 액면분할과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영풍이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액면분할을 결정하고, 1년 내 자사주를 전부소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것은 유의미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 결정을 미룬 것이나, 투자부동산 자산재평가와 현금 자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포함한 밸류업 공시 등 머스트 자산운용의 제안 내용들을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아직도 PBR이 0.22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경영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저평가의 이유와 해결책

저평가의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그 중요 원인으로 봅니다.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시스템 상의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된 것입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 근로자 사망사고는 그러한 시스템 상의 문제들이 드러난 한 단면일 뿐입니다.

후진적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소위 알짜 부동산 중 하나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의 관리를 영풍이앤이가 하고 있는데, 정세환 부회장이 영풍이앤이에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풍이앤이는 영풍의 100% 자회사로 지난해 영풍 소유 건물의 관리용역으로만 35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핵심 계열사라고 볼 수는 없으나 영풍의 임대부분 이익이 2021년 115억원에서 2022년 131억원, 2023년 188억원으로 매해 급성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영풍 그룹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장세환 부회장이 등기임원도 아니고,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언론기관들은 장세환 부회장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를 감시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50%가 넘는 상황에서 대주주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의 도입이 필수입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갖는 주식 수 x 선출할 이사 수 만큼의 의결권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뽑는 경우, 집중투표제에서는 1주를 가진 주주가 1명의 이사 후보자에게 3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를 감시할 수 있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풍은 집중투표제는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

도이므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최소 16%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일반 주주의 이사 선임은 어려우므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두었으나, 제가 운영하는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만 하더라도 16%가 넘는 주주들이 결집한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영풍의 집중투표제 반대 의견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선임된다고 해서 영풍의 주식가치가 빠른 시기 안에 회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시장가치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다소간의 배당확대, 액면분할 등의 조치는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김경울 회계사님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이를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영풍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영풍문고빌딩,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영풍빌딩 등 소위 알짜 투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의 시장가치가 기업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회사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산재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에서 회사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주주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의 지분 분포를 고려할 때, 집중투표제와 김경울 회계사의 감사위원 선임이 절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0.01%의 주주들이 모여 5%, 10%, 20%가 될 수도 있으며 실제 이러한 사례들은 플랫폼 업계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내가 몇 주밖에 안 보유하고 있어서, 내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결론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면 영풍의 주가는 계속 이대로가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여러 소액주주들과 함께 아세아제지 등 다수의 상장회사들이 의미 있는 주주환원책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본 서신 맨 앞에 저를 상세하게 소개드린 것은 제가 영풍 주주로서 진행하고자 하는 주주운동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를 이용하시거나, 헤이홀더의 전자위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위임 참여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헤이홀더를 이용하여 의결권을 전자위임하시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내용과 무관”하게 1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해드리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풍 주주 허권 드림

Office: 02-583-7100

Mobile: 010-3473-3288

Email: khur@weonlaw.co.kr

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실 수 없는 주주분께서는 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헤이홀더를 이용한 전자위임

- ①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헤이홀더’ 앱을 검색하신 후 다운로드 받고 실행
- ② 가입 후 첫 화면에서 하늘색 배너 “전자위임이 가능한 종목이 있습니다”를 탭 하신 후 티플렉스를 선택
- ③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기권을 탭한 후 전자서명

2.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의결권 행사

○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5년 3월 17일 9시 ~ 2025년 3월 26일 17시